자녀 제작자와 자녀 몰이꾼

(엡6:4~9)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녀 제작자와 자녀 몰이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900년대 초에 건립 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윌슨 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 윌슨 산 천문대에서 관측되어진 천문학 현상과 이론이 있어요.
그게 빛의 도플러효과입니다.
도플러효과라는 것은 빛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에도 적용되어서, 기차가 가까이 오면 소리가 커지고, 기차가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너무나 지극히, 무슨 뭐 학적인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윌슨 산 천문대에서 정립이 됩니다.
우주에 있는 별이 지구에 가까이 올수록 청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멀어 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관측된 똑같은 위치에 있던 그 별이 점점 더 적색으로 바뀐다는 것은, 지구에서 멀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관측함을 통해, 우주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간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역사적인 발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천문학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이 귀중한 이론이 누구에 의해서 관측되고 정립 되었느냐? 이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에드윈 허블과 밀턴 휴메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은,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블 망원경, 천문학 관측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망원경 아닙니까?

이 망원경을 제작한 분으로써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이 있고, 밀턴 휴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밀턴 휴메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교육제도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슨 산 천문대는 해발 1800미터 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의 빛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도시의 빛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경우에 이 천체관측이 잘 안 되거든요, 망원경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1800미터 높이에 있기 때문에 천체관측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윌슨 산 천문대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질 때에, 그 당시 그 모든 기자재와 재료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위로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새가 동원되는데, 이 동원된 노새들을 끄는 몰이꾼이 누구였냐 하면, 밀턴 휴메이슨이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영민해 가지고, 자기가 노새를 통해서 나르고 있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들에게 묻고 묻고 하면서 그 천문대가 완성 되었을 때, 거기서 청소부 일을 합니다.
전기 보조공도 하고 관리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렇게 청소 일을 하다가, 관측원이 아파서 못 오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조 역할을 너무 영민하게 잘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파트너가 됐고, 그리고 발견해 낸 게 이 빛의 도플러 효과로서 천문학에서는 허블 법칙이라고 일컫습니다.
아! 대단하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문학의 '천'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천문학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됐는데, 원래 직업이 노새 몰이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 된 자녀보다는 아래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들을 말할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제작자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몰이꾼이 되어야 됩니다.
밀턴 휴메이슨이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를 만들기 위한 모든 기자재들을 나르는 노새의 몰이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자리로 몰아가는 몰이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자녀 제작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뜻하고 있는 이런 자녀 몰이꾼의 모습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자녀를 몰아가는 부모, 많지 않아요.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제작자의 위치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재창조해내려고 합니다.
제작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모든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과 불화의 씨가 잠재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것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별 뭐 대단한 다른 뜻이 없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도 역시, 믿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라고 하는 다른 인격을 관계한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은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인용해온 마태복음의 말씀, '내가 온 것은 그 아비와 아들이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의도를 함께 생각함으로써, 에베소서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입장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비와 아들이 먼저 원수가 됨으로써만 아비가 아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떤 면에서 원수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야될 아비의 마음인데, 자식이 빼앗아갈 때 이게 바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비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식에 대해서 원수로 취급해 가지고, 절대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아버지께 먼저 드리게 됨으로써,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너머에 내 마음을 둘 때에, 내가 온전한 아비가 되고 온전한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식을 제작하려고 달려들면서 자식과의 불화와 갈등이 빚어지고, 온전한 부모와 자식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는 그냥,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는 그냥 그 말입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근데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이 자녀 쪽에 갖다 붙은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여워하면 대부분 부모가 노여워하지, 어디 감히 자녀가 부모 앞에서 부모를 향하여 노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 노엽습니까? 어떨 때 화가 납니까? 노엽다는 말이 화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자극해서 화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특별히 분노하는 일이 많지요, 부모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힐 때 화가 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될 때, 이렇게 뭔가 막힐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에,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 자식이라고 하는 저 인격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식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으로 자식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자식을 끌어들이게 되면 우리는 자녀 제작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의 인간됨을 내가 바라면서 디자인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내가 또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돼야,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무리 부모가 공평무사한, 그러한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자식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자녀를 제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막힙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특별히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것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사춘기의 의미가 자식을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할까?
반항이 아닌 합리적인 결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자식의 인생을 제작하려 하니까, 끝없는 갈등과 불화가 조성 되면서 자녀에게서 노여움이 나오게 돼요.
화가 자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분노함이.
절대로 자녀를 제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의 말씀이.
이걸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얘기 드렸던 이 비유적인 이야기에 적용시키면, 밀턴 휴메이슨이 노새 몰이꾼이었는데, 무엇을 하는 노새 몰이꾼이었습니까?
윌슨 산 천문대를 만드는 기자재를 나르는 몰이꾼이었습니다.
이걸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몰아줘야 됩니다.
천문대가 하늘을 관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관측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끔, 마음을 몰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 마음을 몰아가는 과정, 아이가 너무 어느 하나에, 예를 들어 게임에 집착을 한다.
하나님을 관측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매이지 않은 자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다 차단된 해발 1800미터 위에 윌슨 산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것이 마음에 강하게 보이면 하늘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 세상 만물이 보이니까,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몰아갑니다.
결국은 어디로 몰아갑니까?
하나님이 제일 관측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요? 십자가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라야만 하늘이 관측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라야만.
서서히 그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제로원의 원리를 통해서 자식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마음, 정신, 이성을 뜻하는 그런 '누수'라는 단어와, '위치하다, 자리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올바른 곳에 자리 잡게 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과 마음과 이성과 생각 등이 올바른 자리에 자리 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관측되는 자리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것만 해줘서 하나님이 관측되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사는가 하는 그 문제는 자식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위치한 그 곳에 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
이 말자체가 재미있죠?
훈계라고 하는 말이 '누데시아'인데 '누스'라는 말과 '티데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누스가 정신이고 마음이고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티데미'라는 게 배치한다, 위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훈이라는 말은 키운다는 뜻이에요.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마음가짐을, 정신 상태를 생각을 올바른 자리에 위치하게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아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자녀들의 마음상태를, 마음의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붙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학교 다녀야 되니까 공부시켜야 되고, 또 잔소리해야 되고, 공부하라 해야 되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의 분위기 안에서 공부해야 되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뭐 홈스쿨링도 가능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니까, 잘못 됐건 잘 됐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은,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부모가 할 일은, 자녀의 마음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는 윌슨 산 천문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 산 천문대 아닙니까?

갈보리 산 십자가에 마음이 걸릴 때라야만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고, 하나님이 관측되면 이 아이의 삶은 중학교 2학년까지 교육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대통령 되면, 중학교 2학년 학력으로 대통령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천문학의 아주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길 아이라 그러면, 밀턴 휴메니슨처럼 빛의 도플러 효과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 안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미국 교육제도 안에서 그 교육을 받게 하되, 특별한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를 따를 것이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몰아가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기여하면서 살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마음을 몰아가면 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성장하도록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훈계는 마음의 위치를 잡아주는 일입니다.
그 위치를 잡게 하기 위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요.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작자가 아니라 몰이꾼으로서,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는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서 매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언제나 주의 훈계를 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맞는 일이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안 돼!’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의 창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 전 모르겠어요.
‘안 돼’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뛰어 넘는 바람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창조력은 부모들이 ‘된다, 된다!’ 긍정하면서 얘들을 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버려 둠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압니다.
창조의 근원되시는 창조주 자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일 때 창조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녀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모가 의도적으로 형성을 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라는 말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도 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라’는 이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자녀 제작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창조적이 된다.
이게 자녀 제작자로 나서는 거거든요? 이건 자녀를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

안 되는 걸 알아야 해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두면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죄악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기껏 우리가 하는 말은, 도둑질 하지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라 뭐 이런 것 정도 가리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얘기에요.
네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것 옆에 하나님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너 이것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장난감을 좋아한다, ‘장난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게임을 좋아하면, 공부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게임보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몰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노여움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몰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둔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아빠와 엄마가, 역시 자식의 마음도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양육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유일한 천문대인 십자가로, 서서히 자녀의 마음을 몰아가는 몰이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자녀 제작자가 아니라 자녀 몰이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는 십자가 천문대로 몰아갈 때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우경우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